



## 원효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았던 인물

역사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남윤

### 원효의 전기자료

원효(元曉:617~686)는 우리나라 불교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힌다. 그는 당시까지 전해진 불교와 여러 분야의 학문을 두루 공부하고 독창적 사상체계를 이루어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파계하고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어 유학자 설총을 아들로 두었다. 그 뒤에는 거사의 차림으로 저자거리에서 일반 백성들과 어울리며 거침없이 살았다. 그리하여 왕실귀족 중심이던 불교를 일반대중의 신앙으로 뿌리내리게 했다.

그러나 원효의 생애는 생각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그의 전기 자료는 「고선사서당화상비(高仙寺誓幢和尚碑)」와 『송고승전』 권4의 원효전, 『삼국유사』 권4, 원효불기(元曉不羈)조의 세 가지이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서당화상비는 9세기 초 애장왕대에 건립되었다. 원효 사후 100여 년이 지나 그의 후손인 설중엽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를 흠모하는 일본인 고관의 환대를 받고 귀국한 뒤 추모사업을 벌이며 비건립을 계획하였다. 왕실과 재가 신도·승려들의 후원을 얻어 820년경 완공된 이 비에는 원효의 생애와 사상·활동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찍이 파손되어 버린 듯 비문의 탁본조차 전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비편도 훼손된 부분이 많아 그 절반 정도만 판독되어 있을 뿐이다.

『송고승전』의 원효전은 10세기 말경 중국 불교계에 알려진 원효의 모습인데 그 내용은 『금강삼매경』의 전래와 관련된 연기설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삼국유사』는 13세기 후반 일연이 『향전』을 인용하여 원효의 출생설화, 요석공주와의 인연, 거리에서 대중을 교화한 내용 등 당시 다른 자료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모아서 쓴 글이다. 일연은 ‘원효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았다(元曉不羈)’라고 제목을 붙여 그를 평가하였다.

원효는 어떤 인물인가? 지금 남아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효의 모습을 찾아보기로 하자.

## 출신과 출가

원효는 압량군(지금의 경북 경산)의 불지촌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유성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다고 하며, 만삭이 되어 밤나무 곶을 지나다가 갑자기 산기가 있어 남편의 옷을 나무에 걸어 놓고 출산했다고 한다. 속성은 설씨, 조부는 잉피공 또는 적대공, 부친은 담날내마였고, 어릴 때 이름은 서당이었다. 설씨는 본디 서라벌에 살고 있던 6촌의 주민들에게 주어진 여섯 성씨 중 하나로 왕족인 성골과 진골 다음가는 6두품에 속하는 신분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내마(신라 17

관등 중 11위)로서 지방에 파견된 관리였기 때문에 원효는 압량군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원효가 태어나 성장한 시기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신라는 진흥왕대에 한강 일대와 동해안 깊숙한 곳까지 차지하고 영토를 크게 늘렸다. 그러나 7세기에 접어들면서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에 계속 물리고 있었다. 그래서 혈통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엄격한 골품제 사회였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 규정보다 높은 벼슬이 주어지기도 했다.

전쟁이 잦은 시대에 원효는 승려가 되었다. 『송고승전』에는 ‘총각 머리 할 나이’에 출가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15세 무렵 출가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때의 행적이나 출가동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구도의 길에 나선 그의 결심은 원효라는 이름에서 엿볼 수 있다. 그의 결심은 그 스스로가 칭한 ‘원효’라는 이름에서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일연은 ‘부처의 지혜광명을 처음으로 빛나게 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하였다.

## 구도와 깨달음

출가한 뒤 원효는 일정한 스승을 따르지 않고 두루 돌아다니며 수학했다고 한다. 신라에서는 진흥왕대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유학승들이 한문으로 번역된 대장경과 불교관계 유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불교학 연구와 신앙이 활발해졌다. 그는 불교에만 그치지 않고 유교나 도교의 경전과 각종 예언서까지 두루 공부하였다.

당시 불교계를 주도한 인물은 원광과 자장이었다. 이들은 진골 출신으로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와 국왕의 우대를 받으며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황룡사 구층탑 건립을 주도하는 등 정치·사회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 불교학은 유식과 화엄이었다. 원효의 불교학도 물론 그것이 바탕이 되었다.

또한 원효는 사미승이었을 때부터 울주 영취산에 숨어살던 낭지에 게 큰 스님으로 예를 다하면서 「법화경」을 배웠다.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가던 길에 고구려의 고승 보덕을 찾아가 「열반경」과 「유마경」 등을 배웠다. 그리고 거침없는 행동으로 대종과 함께 하며 교화를 펼친 해공과 혜숙·대안에게는 반야공사상을 배웠다.

그런 가운데 645년 당나라에서는 현장(602~664)이 17년간 인도의 나란타 불교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많은 경론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그는 당 황실의 후원을 받으며 대대적인 불경 번역사업을 벌였고 또 새로운 불교학인 신유식(新唯識)을 널리 강의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신라에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원효도 현장문화에 유학할 것을 결심하였다. 650년 34세의 원효는 의상과 함께 길을 떠나 당나라에 건너가려고 하였다. 당주 경계(지금의 천안군 직산)에 닿았을 때 비를 만나 어떤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게 되었다. 이튿날 새벽에 살펴보니 무덤 속 해골 옆이었다. 비가 계속 내려 길을 떠날 수 없어 다시 그 안에 머물게 되었다. 어젯밤 동굴이라 여기고 편안하게 잠을 잔 곳이 귀신 소굴이라 하니 온갖 망상이 일어났다.

여기서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동굴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세상은 오직 마음에 달려 있고 만법은 오직 생각하기 나름이라! 마음밖에 달리 법이 없거늘 어찌 밖에서 구하리요!” 하고는 발길을 되돌렸다.

원효는 그 마음을 중생과 나누고자 하였다. 또한 신역 경전들은 신라에도 곧바로 전해지고 있었다. 원효는 자신의 마음자리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여 공부하고 해석해 나갔다.

## 환속과 대중교화

서라벌로 돌아온 원효가 하루는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누가

자루없는 도끼를 빌려줄까? 내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라!” 이 노래를 듣고 무열왕이 말하였다. “이 스님이 귀한 부인을 얻어서 어진 아들을 낳고 싶은 모양이다. 나라에 큰 현인이 있으면 이로움이 막대할 것이다” 하고는 관리에게 명하여 요석궁의 홀로 된 공주에게 데려가게 하였다. 잠시 그 곳에 머물며 공주와 인연을 맺어 낳은 아들이 설총이었다.

이 사건으로 원효는 파계승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 승복을 벗어 속인의 옷을 입고 소성거사(小姓居士)라고 하였다. 그 뒤로 그는 더욱 자유롭게 진리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중을 교화했으며 학문에 정진하였다.

어느 날 우연히 광대들이 놀리는 큰 박을 얻어서는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화엄경」의 구절을 따서 무애박이라 하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이것으로 여러 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어울리면서 교화하였다. 마침내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고 귀의하게 되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았던 원효는 말이 미치광이 같았고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도 많았다. 주막과 창녀집에도 드나들고 사당에서 거문고를 타면서 즐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화엄경」을 강의하기도 하고 산천을 찾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파계와 기행으로 원효는 불교계의 배척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온 나라에서 백 명의 고승을 초빙하여 국가의식을 고취하는 법회인 백고좌회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원효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새로 전래된 「금강삼매경」을 주석하고 강의하는 일이었다.

「금강삼매경」은 용궁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왕비가 종기가 나서 약을 구하려고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남쪽 큰 바다 가운데 이르자 한 노인이 나타나 용궁으로 데리고 갔다. 검해라는 용왕이 30장 가량의 흐

트러진 경전을 주면서 “대안성자가 순서를 매겨서 꿰매고 원효법사를 청하여 강의하게 하면 왕비의 병은 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신이 가져온 경전을 대안에게 보내 차례대로 배열하게 하고는 다시 원효에게 보내었다.

원효는 소가 끄는 수레를 준비하게 하여 수레 위에서 소(疏:주석서) 5권을 지었다. 날을 택하여 황룡사에서 강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나쁜 무리들이 흠쳐가 버렸다. 다시 3일간의 말미를 얻어 약소를 지었다. 그가 강의하던 날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법당에 모여들었다. 그의 강의는 위풍당당하였고 물 흐르듯 하였다. 강의를 마친 원효가 외쳤다. “과거에 서까래 백 개를 구할 때는 끼지 못하였으나 오늘 대들보를 놓히는 데는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도다.” 여러 고승 대덕들이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하였다.

이 설화는 문무왕 때의 일로 여겨지고 있다. 원효는 중생제도에 열정을 다하면서 왕실과 관련을 맺었다. 무열왕·문무왕은 통일전쟁을 완수하는 한편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길거리에서 대중 교화활동을 하던 승려들을 우대하였다. 원효는 파격적인 행동으로 불교교단에서는 배척을 받았지만 무열왕과 문무왕의 후원을 받으며 대중교화와 저술활동을 활발히 하였던 것이다.

## 일심(一心) · 화쟁(和諍)

원효는 우리 불교사상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인물이다. 그의 저술은 거의 100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남아 있는 것은 20여 종에 불과하다. 그는 불교학의 모든 분야를 널리 연구하였던 만큼 저술도 두루 미치지 않은 바가 없었다. 반야·천태·열반·여래장·유식·화엄·계율·정토 등 모든 대승경전을 망라하여 저술을 남겼다. 그의 비문에는 “일체의 도리를 모두 다 통달하고자 하는 마음자세로 은미한

이치를 탐구했다”고 되어 있으며 의천은 “경전마다 주석이 있고 통하지 않은 논이 없다”고 평했다.

그는 저술의 첫머리에 ‘대의’라고 하여 그 경의 큰 뜻을 명료하게 밝혀놓고 주석을 전개하였다. 그의 저술은 독창적이고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뛰어난 문장으로 일찍부터 평가되어 왔다.

원효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일승(一乘)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일심과 화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 의해 소개된 신유식은 중생의 차별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일부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교설을 내세우고 있었다. 또한 대승불교의 양대 조류인 중관(中觀)과 유식 사이의 공유(空有)논쟁도 알려지게 되어 중국불교계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원효는 일승 우위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심의 논리로 이러한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는 주로 『대승기신론』과 『금강삼매경』에 근거하여 일심을 설하였다. 일심은 자유자재한 인간 본연의 자리이다. 또 일심은 모든 법 곧 모든 존재의 근거이다. 그 근거에서 보면 모든 것은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 일심은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의 둘로 나누어지지만 이 둘이 다를 바가 없다. 생멸이 곧 진여이고 진여가 곧 생멸이다. 곧 일심에서 보면 차별적인 다양한 현상이 진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일심을 근거로 하여 화쟁을 설하였다. 중관과 유식의 대립, 일승과 삼승의 대립 등 다양한 불교 이론 사이의 대립과 다툼에 대해 불법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이론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진리는 언어로 표현되지만 언어로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언어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부정하면서 또 부정에도 집착하지 않는 “동의하지도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설한다”는 방법으로 화쟁하려고 하였다.

원효는 여러 경전의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고 부처님이 그것을 설한

본래의 뜻은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곧 모든 교설에 특유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면서 일심에 의해 회통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는 의상이 귀국한 뒤 그를 만나 중국 화엄의 새로운 이론을 수용하여 자신의 교학을 완성하였다. 그는 분황사에 머무르며 『화엄경소』를 짓다가 십회향품에 이르러 붓을 놓았다고 전해진다. 십회향품은 진리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모든 행위(自利 利他行)를 중생에게 되돌림으로써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간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곧 그는 중생의 제도에 중점을 두고 일심사상을 실현해 나갔다.

## 원효는 누구인가?

원효는 686년 70세로 만년에 머물던 혈사에서 입적하였다. 치열한 전쟁 끝에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 군대까지 몰아낸 뒤 10년이 지난 평화로운 때였다.

그는 새로운 불교학과 신역경전의 물결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불러온 대립과 갈등을 독창적 사상으로 해결해내었다. 또한 백제와 고구려의 불교학도 포괄하여 신라 국내에서 학문적 완성을 이루었다. 나아가 그의 불교학은 중국과 일본에도 전해져 동아시아 불교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는 거침없고 자유롭게 살았던 인물이었다. 불교교단의 테두리에 매이지 않고 직접 저자거리에서 노래와 춤으로 대중과 어울리며 교화를 베풀었다. 중생의 심성이 곧 여래장이며 예토와 정토가 본래 일심이라는 깨달음 위에서 지나간 전쟁에 지친 일반 백성의 마음을 불교에 귀의하게 하였다.

원효의 불교에 대한 독창적·종합적 이해체계와 일심사상·대중교화활동은 신라를 넘어서 우리나라 불교의 근본을 이루었다.